

일제말기 대구24부대 학병 탈출의거

金 度 亨*

1. 머 리 말
2. 일제의 학생동원과 대구24부대 입대
3. 대구24부대 집단탈출 계획의 추진
4. 대구24부대 집단탈출과 피신생활
5. 집단 탈출자의 출신과 성향
6. 맺 음 말

1. 머 리 말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전장이 확대되어 가면서 한국인을 동원하여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지역이 확대되면서 일본인만으로 그것을 채울 수 없었고, 한국인을 '일본군인'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1938년 이른바 '지원병제도'를 실시한 이래, 1942년 5월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국인 청년들을 전장으로 끌고 가려고 획

책하였다. 본 주제와 관련한 학도지원병 제도는 1943년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에 의해 한국인 학생들을 징집하여 전쟁터로 내몰았다.

일제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한국인 학생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속부대를 탈출하여 독립운동 전선에 투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엄중한 일본군을 탈출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한 두 명이 아닌 집단으로 부대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말기 강제동원되었던 학병들이 대구24부대에서 6명이 집단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탈출의거는 당시 강제동원되었던 한국인 청년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탈출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군 내부적으로도 한인병사들의 탈출이 감행됨으로써 군내부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지금까지 일제말기 한국인 학생들의 전쟁동원과 저항에 대해서는 학생운동을 집대성한 鄭世鉉이 1944년 6월에 일어난 함흥 43보병부대 탈출사건과, 1944년 8월에 일어난 대구24부대 탈출사건, 1944년 11월의 평양사단 탈출사건 등을 개설적으로 다루었다.¹⁾ 또한 변은진은 일제말기 징병·학병을 기피자들이 산 속에 은신해 武裝隊를 조직하여 저항하였다는 것을 밝혔다.²⁾ 이와 더불어 표영수는 평양학병의거 판결문을 소개하였으며,³⁾ 일제의 한국인 학생동원에 대해서는 姜德相의 연구가 있다.⁴⁾ 하지만 일제말기 일본군 탈출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탈출사건은 대부분 일본군 내부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따라서 탈출사건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군내부에서 형식적인 군사재판을 거쳐 처리되는

1) 鄭世鉉, 『抗日 學生 民族運動史 研究』, 一志社, 1977; 鄭世鉉, 『獨立運動史』 제9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1.

2) 변은진, 「日帝末 戰時과쇼체제하 學生民族運動의 전개와 民族主義의 性格」, 『國史館論叢』 67, 1996.

3) 朴性利, 「日軍 平壤師團의 學兵義舉」, 『新東亞』 1969년 4월호; 표영수, 「'平壤學兵義舉事件' 判決文」, 『韓日民族問題研究』 창간호, 2001.

4) 姜德相, 『朝鮮人學徒出陣』, 岩波書店, 1997.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24부대(제20사단 제80연대)⁵⁾에는 주로 경상남북도 출신의 학병 6백여 명이 강제 입대하였다. 입대후 학병 중 6명이 집단으로 탈출한 사건이었다. 대구학병들은 단순히 일본군대를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후 1944년에 들어 일제의 종말을 느끼고 그러한 확신하에서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의거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거 관련자의 「재소증명서」의에는 직접적인 관련자료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이 의거에 직간접으로 관련했던 인사들과의 인터뷰 및 수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수기들도 후대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와 수기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실상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발굴되면 대구24부대 탈출의거의 역사적 실체가 보다 명확히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2. 일제의 학생동원과 대구24부대 입대

(1) 학도지원병제의 실시

1942년 5월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결정하고 난 후, 징병적령기를 넘은 한국인 학생의 전쟁동원을 구상하였다. 즉 21세 이상의 한

5) 조선군 제20사단 제80연대는 1942년 12월 26일 대구에서 편성되었다. 그 후 주력부대는 1943년 1월 뉴기니아의 웨와크와 한사항에 파견되어 핀슈하펜전투, 아이타페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뉴기니아전에는 참가한 조선군 제20사단 보병 제78연대, 보병 제80연대, 야포병 제26연대 등에는 한인 지원병들이 약 2,500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인 대학·고등전문학교에 학생을 징집하기 위해 편법으로 안출된 것이 陸軍省令 제48호 「陸軍特別支援兵臨時採用規則」 및 개정령인 陸軍省令 제53호 「陸軍特別支援兵臨時採用規則改正」, 陸軍省令 제54호 「修學繼續을 위해 入營延期 등에 關한 件」 등의 법령이다.⁶⁾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3년 10월 20일 한국인 학생의 '학도지원병제'를 발표하였고, 그달 30일 중학생 이상의 학생 3만명을 京城運動場에 모아 「大學專門學校學徒臨戰決意大會」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43년 10월 25일부터 학도지원병의 접수를 받아, 11월 20일 학도지원병을 마감하고, 12월 12일~20일 징병검사, 1944년 1월 20일 입영시키고자 하였다. 학도지원병도 형식적으로 '지원'이었지만, 그 과정은 학교와 일제당국의 강요에 의한 강제동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영 대상 학생들은 소재를 감추고 지리산·오대산에 도주하였으며, 만주로 도망하는 자, 친척집을 전전하는 자가 속출하였다.⁷⁾ 이에 학도지원병을 권유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득공작을 개시하였으며, 학생의 가정을 호별 방문하여 부모에게 자제를 입영시킬 것을 권유하였다. 일제 당국에서도 경찰 등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지원을 강권하였다. 한국내의 대학·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일제의 강권에 의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입영대상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은 일본이었다. 한국내 적격자가 1천여 명인데 비하여, 일본에는 6천여 명에 가까웠다. 재일유학생을 대학별로 보면 日本大 1,554명, 明治大 1,258명, 中央大 1,125명, 法政大 618명, 早稻田大 533명, 專修大 327명, 立教大 120명, 東洋大 101명, 農業大 87명, 上智大 82명, 橫濱專門 82명, 慶應大 71명 순으로 이 12개교에서 5,958명을 차지하였다.⁸⁾

1943년 11월 21일 현재 일제의 끈질긴 권유와 협박으로 한국내 학생의 96%, 일본유학생의 93%가 강제 지원케 하여 약 4,385명을 일본군인으로

6) 姜德相, 위의 책, 3쪽.

7) 姜德相, 위의 책, 33쪽.

8) 權五翼, 「在東京朝鮮學生의 現狀과 將來」, 『朝光』 7-3, 1941.3, 225-226쪽.

만들었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인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 ‘지원’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행정·경찰 기구가 적극 개입하고 있었다. 함경북도 청진 검사정의 보고에 의하면 지원자 256명 중 “자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는 도내 겨우 10명 내외에 불과하고, 다른 대부분은 모두 농후한 지도적 격려를 더하면서 결의 지원한 자”라고 하였다.⁹⁾ 평안남도에서도 자발적 지원자는 27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¹⁰⁾ 일제의 강제적 병력동원에 반발하여 학생들의 저항은 노골적이었다. 다음 자료는 전형검사를 받는 학생들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조선인 학도의 임시특별지원병 지원자 전형검사는 …… 그 대부분 전혀 緊張味를 잃고 대기실에서 태도 등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통제함을 발휘하였다. 항상 조선어만을 사용하고 猥談에 빠지거나 혹은 지원권유에 대한 불평불만을 말하였다. 그 가운데는 검사 전날 밤의 폭음으로 눈이 헹하여 검사위원으로부터 질책 받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구두시험 때에 시험관에 대해 지원권유의 불법을 외치는 자도 많았고, 심지어는 軍으로부터 제출을 명받은 無記名 感想文에 대해 “불합격하면 소 한 마리를 잡아 축배를 올리려 하였는데 불행히 갑종 합격하였다”라고 기재하는 자도 있었다.¹¹⁾

라고 하여 한국인 학생들의 비협조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한국인 학생들이 전형검사장에서의 강제동원에 비협조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일제는 지원대상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연·혈연·학연의 인간관계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학도병의 경우 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을 때는 “학부형이 외부로부터의 종용 증압에 이기지 못하고 諦觀적으로 어찌하지 못하고 子弟를 勸說하여 부득이하게 지원”하게 하였던 것이다.¹²⁾ 지원대상자가 지

9) 高等法院檢事局, 『臨時陸軍特別支援兵の動向一斑』, 『朝鮮檢察要報』 제1호, 1944. 3. 2쪽.

10) 高等法院檢事局, 위의 책, 3쪽.

11) 高等法院檢事局, 위의 책, 3쪽.

원을 기피하는 경우, 대상자가 경찰에 출두할 때까지 가족을 유치하여 두는 것이다. 대구제24부대에 강제입대했던 許相燾의 경우에도 징집을 기피하기 위해 일가집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조부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입대하게 되었던 것이다.¹³⁾

대구24부대 입대 학병들 대부분은 강제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특히, 부대 탈출관련자들은 일제의 협박과 강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입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일본군내에서 이들은 늘 탈출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부대를 이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학병들의 대구24부대 입대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된 한국인 학생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후 1943년 12월 서울의 府民館에서 壯行會를 하고 일본군 부대에 입대하였는데, 그 가운데 600여 명이 대구의 24부대에 배속되었다. 1944년 1월 20일 학병들은 사각모에 어깨띠를 걸치고 대구24부대에 입영하였다. 대구24부대는 조선군사령부 휘하 보병 제80연대를 말하며, 한국인 학도병들이 입대할 당시 24부대는 독립된 전투부대가 아니었고 일선으로 출정하는 병력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남양군도에서 소모되는 병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본토에서 이동되어 온 병력을 일단 대구24부대에 수용했다가 다시 戰地로 이동하는 은폐작전의 요새가 바로 이곳이었다.¹⁴⁾

대구24부대에 입대한 학도병들은 각 중대로 분산 배치되었다. 당시 제24

12) 高等法院檢事局, 위의 책, 2쪽.

13) 許相燾①, 『나의 被強要志願 手記』(1·20同志會, 『1·20學兵史記』 제1권, 1·20同志會中央本部, 1987), 215-219쪽.

14) 許相燾·金鳳虎·吳台鎭의, 『아. 24部隊 사나이들!』, 『1·20學兵史記』 제1권, 1·20同志會中央本部, 1987), 382쪽.

부대에 입대한 학병들에 대한 일차적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병들이 남긴 수기 등을 통해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이용한 학병들의 수기는 다음과 같다.

1. 金而鉉, 「日軍 大邱24部隊의 叛亂」
2. 權赫朝·文漢雨·權重赫·金福顯, 「하늘과 땅 그리고 산도 울었다」
3. 權重赫, 「못다 이룬 나의 포부」
4. 許相燾·金鳳虎·吳台鎭의, 「아. 24部隊 사나이들!」
5. 許相燾①, 「나의 被強要志願 手記」
6. 許相燾②, 「맨손 항쟁 스무달」

위의 수기들 중 1, 2, 3번은 학병탈출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는 같은 중대에 있었던 학병출신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1번의 기록은 김이현 중심으로 서술되어 많은 부분에서 각색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2번과 3번이 비교적 탈출의 과정 및 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4-5번은 탈출 당시 대구24부대의 상황을 아는 데는 도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들 수기의 내용 가운데 사실이 다르거나 혹은 각색된 부분은 제외하고 상호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분만을 채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가공하는 부분도 있어 위의 수기 모두를 대구24부대 탈출의 자료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군을 탈출한 학병들은 대부분 대구24부대 제3대대 제3중대(중대장 城之內 중위)에 28명이 배치되었다. 당시 28명의 제3중대에 배치된 학도병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¹⁵⁾

權重赫(보전), 金福顯(보전), 權性燾(혜전), 許相燾(중대), 徐丙義(보전), 金大濬(연전), 金鳳虎(慶應義塾), 權赫朝(中央大), 高海龍(東京音大),

15) 許相燾·金鳳虎·吳台鎭의, 위의 글, 358쪽.

孫天植(中央大), 金永基(보전), 李博源(보전), 柳鍾大(혜전), 金安國(中央大), 李德潤(연전), 金鏗標(보전), 許澈(明治大), 李源基(日本大), 金而鉉(明治學院), 朴泰景(東京帝大), 文漢雨(연전), 崔淳道(明治大), 尹于善(보전), 尹大均(성대), 河興烈(中央大), 吳台鎭(中央大), 白日潤(보전), 金煥豹(東京商大), 병고로 며칠 후 입대)

학도병들이 입대 당시 제3중대(城之內隊, 약호:ウ隊)에는 초년병 교관으로 다나카 야스오(田中八十男) 준위, 교관 밑에 조교는 시마다(島田) 오장(대구상업을 나와 乙幹으로 오장이 된 자) 등이 있었다.¹⁶⁾ 제3중대에 배속된 학도병들은 처음 입영하여 내무반으로 가서 군복·군화·군모로 갈라 입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3중대 소속의 학도병들에게만 현 군복과 군화가 지급되고, 나머지 학도병들에게는 모두가 새 군복·군화·군모가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제3중대 소속 학도병들에게만 현 군복을 준 이유는 이들을 곧바로 전선으로 보낼 병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군에서는 이들을 부대에 잔류시켜 일본내에서 오는 병력과 곧 실시될 징병제에 대비시키고자 한 것 같다. 왜냐하면 대구24부대에 입영한 학병 대부분은 입영한 지 7일만에 출동명령을 받고 다음날 새벽에 남중국 전선방면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중대 소속의 학병들만 그대로 부대에 남겨놓았던 것이다.

당시 제3중대 소속 학병들의 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제3중대에 배속된 학병들만 별도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1944년 2월 일본 교토(京都) 부근에서 이동해 온 제186부대 병력 3,000명이 소위 '죽음의 남태평양'으로 이동해 갈 때도 제3중대만 제외되었다. 당시 입대했던 金而鉉에 따르면, 제3중대에 소속된 한인학병들은 전원이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첫째 몸이 약한 자, 둘째 집안이 좋은 자, 셋째 몇 대 독

16) 許相燾②, 「맨손 항쟁 스무달」(1·20同志會, 『1·20學兵史記』 제1권, 1·20同志會中央本部, 1987), 419쪽.

자, 넷째 사상이 불온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제3중대에 집결시켰던 것이다.¹⁷⁾ 이는 일본군에서 보아 전선에 내보낼 수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만일 이들을 전선에 보냈을 경우 총부리를 반대로 돌리거나 혹은 일본군을 탈출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자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군에 배치된 한국인 병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군대내의 폭력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군대내의 폭력은 지독한 것이었고 일상적인 행위였다.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는 근대 일본군의 특징으로 생명을 지키려는 배려가 극단적으로 결여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군대 내무반 생활에서의 가혹한 사적 제재와 불합리한 강제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¹⁸⁾ 강제동원된 학병들에게는 일상적인 폭력과 민족적 차별이 더해졌고,¹⁹⁾ 폭력과 차별은 내무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에 따라 학병들은 일본과 일본군대에 대한 적개심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더욱 더 탈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대구24부대에서 마찬가지로 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군대생활은 한 마디로 말해 “아침부터 밤까지 매 맞는 일 뿐이다. 특 치고 특하면 철썩 올라붙고” 폭력이 난무하였다.²⁰⁾ 그러나 대구24부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학도병들이 일등병으로 진급되고 그때부터 집단훈련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 뒤 대구24부대에는 일본의 사사야마(佐佐山) 지방에서 보충부대 6,000명의 병력이 이곳에 들어왔다. 이들은 신체에 결함이 있어 丙種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사람들인데 전황이 나빠지면서 군인으로 징집되었

17) 金而鉉, 『日軍 大邱24部隊의 叛亂』, 『實錄 民族의 抵抗-汚辱의 時代-』, 한샘출판사, 1977, 365쪽.

18) 藤原彰, 『天皇の軍隊の特色-虐殺と性暴力の原因』, 『加害の精神構造と戦後責任』, VAWW-NET Japan(パウネット・ジャパン) 編, 綠風出版, 2000.

19) 樋口雄一, 『皇軍兵士にされた朝鮮人-十五年戦争下の總動員體制の研究』, 93쪽.

20) 許相壽③, 『죽음의 部隊의 記憶』, 『實錄 民族의 抵抗-汚辱의 時代-』, 한샘출판사, 1977, 205쪽.

던 것이다. 이어서 일제가 한국인 청년들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대구24부대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 징병자들이 들어왔다. 영내는 봄벼대기 시작했다. 일손이 모자랐다.

이렇게 되자 부대에서는 먼저 들어온 학도병들을 끌어내어, 취사반에 배치시켰다. 그날부터 학도병은 석탄 나르기, 쌀 씻기, 불 때기, 국끓이기, 반찬 만들기, 석탄재 퍼내기 등의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제3중대의 중대원인 김이현과 김봉호는 제4중대로 전속되었고, 권성훈과 권중혁은 제2중대로 전속되었다. 그리고 손천식과 윤우선도 뉴기니아로 떠났다.

3. 대구24부대 집단탈출 계획의 추진

(1) 일본군 집단 폭살 계획

대구24부대에 입영한 학도병들은 1944년 봄부터 탈출을 모의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된 것은 당시 학병들의 수기에 따르면 보충병력이 뉴기니아로 떠나면서부터이라고 하고 한다.²¹⁾ 왜냐하면 전황이 급박한 지역으로 학병들이 파견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부대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자신들도 사지에 끌려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 학병들이 입대하였던 1944년에는 뉴기니아지역으로 일본군들이 도저히 파견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아마도 제19사단의 일부가 필리핀지역으로 파

21) 초기 뉴기니아전에서 일본군이 패배하면서 1943년 1월 한국에서 제20사단(通稱 '朝部隊', 사단장: 青木 中將)이 파견되었고 그 가운데 한인 병사가 약 2,500명이었다(김도형, 『태평양전쟁기 격전지와 조선인 희생자에 관한 연구-뉴기니아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6 참조).

견되었던 1944년 5월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의 학병들은 이때부터 죽음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오직 살기 위해선 탈출밖에 없다는 생각이 학도병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즉, 당시 대구24부대 학병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1944년 6월 말 어느 날 대구24부대의 학도병들은 병력 수송을 위해 대구 상업학교의 경비를 맡게 되었다. 경비를 위해 근무병력을 학병들로 대체된 것이다. 다음날 고참병 4명, 학병 6명 등 10명이 대구상업학교로 갔다. 권혁조와 문한우가 경비를 위해 그곳에 갔을 때 대부분의 병력들이 강제동원된 한국인 청년들임을 알았다. 이에 이들 두 사람은 강제동원된 한국인 청년들에게 탈출을 권유했고, 대구24부대의 학도병들은 자신들이 탈출하기 이전에 징병자들을 탈출시켰다. 징병자들이 탈출한 다음날 경비 병력은 배로 증가되었으며 학도병들은 경비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대구24부대 학병들 사이에는 적어도 1944년 6월경부터 본격적인 탈출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본군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제에 항거하자는 논의도 꽤 있었다. 이 당시 논의된 계획은 매우 엄청난 계획이었는데, 무기를 탈취하여 일본군을 다치는 대로 총살한다는 계획이 학도병 간에 은밀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거사에는 징병으로 입대한 자로서 포섭 가능한 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아래 공작을 벌렸다. 부대내에 있는 학도병 27명이 힘을 합쳐 6,000여 명의 일본인 병력을 몰살시키자는 것이었다. 이 계획도 문한우와 권혁조가 주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²²⁾

첫째, 외부의 동지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반일사상을 고취시키고 징용·징병으로 끌려 갈 동포들을 최대한 도피시켜 줌으로써 민족의 희생을 막는다.

둘째, 탄약고를 폭파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일본군인을 몰살한다.

셋째, 독약을 구하여 음식물에 투입하여 일본군인을 죽인다.

넷째, 학병이 단합하여 집단탈출함으로써 패전을 눈앞에 놓고 단말마적인 발악에 날뛰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몰아넣고 굳어져 가고 있던 민족정신에 새로운 불을 지른다.

이 계획은 거사 전날 밤 같은 시각에 27명의 학도병들이 각기 소속된 소대의 불침번을 일제히 서는 것이다. 같은 시각에 불침번을 서는 일은 각자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책임을 져야만 했다. 그 가운데 2명은 장교복을 훔쳐 입고 주변사령으로 변장하여 탄약고를 점령하고, 기관총을 탈취하여 집중사격으로 일본군들을 몰살시키고 만주로 탈주한다는 것이었다.

일본군 집단 폭살 계획은 문한우·권혁조·김이현 등 27명의 학병 전원의 찬동으로 추진되었다. 거사일은 1944년 6월 8일 오전 2시로 내정하였고, 예정된 장소인 방공호에 20여 명의 학병이 일단 모였다.²³⁾ 그러나 거사 이틀전 계획이 누설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졌다. 따라서 기밀이 누설될 조짐이 보이자 결국 거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일본군 집단 폭살계획이 무산된 이후, 문한우·권혁조에 의해서 일본군 집단 독살계획이 진행되었다. 이 계획은 독약을 구해 식수에 타서 일본군들을 몰살시켜 버린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일본군 폭살계획보다도 현실적이며 희생자도 주도자 두 명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었다. 문한우와 권혁조는 다른 학병들의 희생이 없이, 자신들의 희생만으로 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문한우의 중학교 2년 선배인 李根秀가 당시 동산병원에서 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독약을 구하자는 것이었다.²⁴⁾ 그러나 일본군을 독살하자면 많은 양의 독약이 있어야 하지만 한꺼번에 이 많은 양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

22) 鄭世鉉, 『獨立運動史』 제9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1, 851쪽에서 재인용.

23) 金而鉉, 위의 글, 368쪽.

24) 許相巖·金鳳虎·吳台鎭의, 위의 글, 368-369쪽.

다. 그 사이 학병 가운데 白日濶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독으로 탈출을 해버리고 말았다. 백일운은 취사당번 근무 중 고참병들에게 맞고 그 길로 바로 부대를 탈출하였던 것이다.²⁵⁾

(2) 집단탈출 계획의 추진

일본군 독살계획은 독약을 구하지 못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이, 문한우·권혁조·柳鍾大 3명의 일등병들이 상등병 후보생이 되었다. 대구 24부대에서는 학도병들의 김새를 차리고 학도병 27명 전부를 재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²⁶⁾ 그러나 학병들이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보이자 일본군에서도 학병들을 자극하면 오히려 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계획을 철회하였던 것이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대구24부대의 학병들은 단결된 모습으로 재교육에 반발하였다. 이에 일본군에서도 그들이 탈출해 버릴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병영 둘레에 철조망을 더욱 높이 올리고 경계병의 수효도 배로 늘렸다.

한편, 1944년 중반에 들어 학도병들 사이에는 집단탈출을 통해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는 계획으로 전환하였다. 사실상 이때부터 학도병들은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는 남양·남방·중국 전선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선전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계속적으로 병력이 빠지는 것으로 보고 전쟁에서 일본군이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같은 시기에 집단탈출이라는 대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일본에게 커다란 충격을 줌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정기에 호소하여 반일사상을 재연하여 강제동원의 대상인 청년학도들의 도피를 촉구하는 것이었다.²⁷⁾ 이에 따

25) 許相燾②, 위의 글, 426-428쪽.

26) 金而鉉, 위의 글, 370쪽.

27) 權逸, 위의 책, 82쪽.

라 집단탈출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학도병들이 집단 탈출하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것에 용기를 얻은 한인청년들이 이곳저곳에서 징용·징병을 기피하고 도망을 치면서 혼란에 빠지고 일본군에게 정신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²⁸⁾

탈출계획은 특별히 누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²⁹⁾ 다만, 학병들 사이에 신망이 있던 연희전문 출신의 문한우와 중앙대학 출신의 권혁조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거사준비에 들어갔다. 문한우는 연희전문 재학 중인 1943년 학우들과 함께 항일적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양하다가 일경에 검거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언도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권혁조는 명량한 성격으로 민족의식이 강한 청년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제24부대내의 학도병 전원의 집단탈출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우선 ①목적지, ②탈출구, ③탈출인원수, ④탈출시기, ⑤일반복(탈출 후 갈아입을 옷), ⑥군자금, ⑦식량, 이상 일곱 가지의 탈출계획을 세우고 모의를 계속하였다.

문한우와 권혁조는 미리 연락을 받고 음식물을 장만해 온 문한우 어머니와 함께 모의를 거듭하였다.³⁰⁾ 1944년 6월 말경 매일 밤 학도병들은 부대내의 세탁물 건조장에 모여 앉아서 탈출모의가 진행되었다. 집단탈출이라는 엄청난 계획이 이 단계에 와서는 공개적으로 모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의논까지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목적지는 지리산과 팔공산 둘 중 택일, ②탈출구는 부대서편 세탁물 건조장 부근에 자리한 하수구를 이용, ③탈출인원은 학병 전원으로 하되 만약에 경우 최소한 10명 이상, ④탈출시기는 일본군의 패전을 1945년 3~4월로 보고 8월안에 결행하기로 정하고 확정날짜는 거사 3일 전에 발표, ⑤평민복은 문한우의 어머니를 통해 구하기로 하고 준비가 다 되면 탈출구 부

28) 許相燾·金鳳虎·吳台鎭외, 위의 글, 368쪽.

29) 「권중혁과의 인터뷰(2007. 10. 20)」.

30) 許相燾·金鳳虎·吳台鎭외, 위의 글, 358쪽.

근 지하에 파묻어 두기로 함, ⑥ 군자금은 문한우와 권혁조가 책임지기로 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협력하기로 함, ⑦ 식량은 목적지가 결정된 다음에 협의하기로 하였다.³¹⁾ 이 단계에 들어서는 단순히 일본군대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아가 일본의 패망을 촉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제의 패망을 1945년 3-4월경으로 확신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대구24부대 학병들은 처음 집단으로 탈출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가, 일단 대열을 정비한 다음 국외로 탈출하여 독립투쟁에 참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한우는 팔공산에 권성훈의 누나가 살고 있고 산세가 험하다는 말을 듣고 팔공산으로 탈출하자고 하였다. 이에 권혁조도 팔공산으로 탈출하는 것에 동조하였다. 약 한 달 가량 모의를 하고, 8월 1일 최종점검에 들어갔다. 탈출에 동의한 학도병은 제3중대에 권혁조·문한우·허상도·김복현·이원기, 제2중대의 권성훈·권중혁, 제4중대의 김이현·김봉호 9명뿐이었다. 당초 계획은 전원이 탈출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적은 인원수였다. 이에 실망한 권혁조는 다시 한번 탄약과 폭파를 문한우에게 제의하였으나, 학병들은 집단탈출 쪽으로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44년 8월 3일 밤 11시 부대의 건조장에서 탈출할 사람들만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밤 11시에 권혁조와 문한우만이 나타났을 뿐, 24시가 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조급한 마음에 거사일을 앞당기기로 하고, 거사일을 8월 7일로 정하였다. 8월 5일 전원에게 탈출날짜를 알렸다. 마지막으로 동참자를 확인해 보니, 권혁조·문한우·권중혁·권성훈·김이현·김복현·이원기·김봉호 8명이었다. 하지만 김봉호는 시력이 너무 약해 빠지고, 이원기도 마음이 약해서 빠졌다.³²⁾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모두 6명이 모였다. 문한우는 탈출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그의 부모를 통하여 상당액을 마련하였다.

4. 대구24부대 집단탈출과 피신생활

대구24부대 학병들의 거사계획은 매일 오후 9시 반 세탁물 건조대에는 제2중대, 제4중대로 전속 갔던 4명의 학병도 합세해서 25명이 모여 거사 모의를 하였다. 8월 7일 밤 주동멤버의 한사람이 8-10시 사이에 불침번을 서야만 했기 때문에 다음날인 8월 8일로 연기했다. 탈출자는 권혁조, 문한우, 권중혁, 김이현, 권성훈, 김복현 등 6명으로 결정하고 탈출을 결행하였다.³³⁾ 밤 9시 50분 권혁조의 지시에 따라 권성훈을 선두로 한 사람씩 담배를 피우고 담소하며 서성거리다가 차례로 하수구를 빠져 나갔다.

하수구를 통해 빠져 나온 6명은 미리 뽕나무밭 油紙에 써서 숨겨둔 민간 인복 2벌(문한우 자신과 그의 형의 옷)을 권혁조와 문한우가 갈아입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도병들이 처음 탈출할 장소로는 지리산이었으나 팔공산으로 수정하였다. 왜냐하면 첫째 지리산에 비해서 거리가 1/10밖에 안되고, 둘째로 팔공산은 험준하기로 이름난 명산으로 4개의 군이 걸쳐 있어 그 범위가 크고 밀림이 우거져 촌간의 분별마저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다. 특히 탈출자 중 한 사람인 권성훈이 팔공산에 산재한 山寺들 중에 가장 큰 동화사 주지의 양자로서 산세와 지리가 밝고 절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어 의식주 문제와 외부 정보 입수가 용이하다는 것이었다.³⁴⁾

부대를 탈출한 6명의 학도병들은 대구 중앙동, 역전, 신천동을 거쳐 팔공산으로 입산하였다. 팔공산의 眞佛庵을 찾아갔다. 우선 해결할 문제는 탈출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권성훈이 아는 鄭氏의 안내로 진불암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진불암에서 3km 정도 내려가면 安東權氏 재실에서 머물기로 하고, 정씨는 권성훈의 누나 집에서 식량을 가져오기로

31) 許相燾·金鳳虎·吳台鎭외, 위의 글, 391쪽.

32) 許相燾·金鳳虎·吳台鎭외, 위의 글, 400-403쪽.

33) 權赫朝·文漢雨, 「하늘과 땅 그리고 산도 울었다」(1·20同志會, 『1·20學兵史記』 제2권, 1·20同志會中央本部, 1988), 285쪽.

34) 權赫朝·文漢雨, 위의 글, 289쪽.

하였다. 권성훈의 누나로부터 곶보리 다섯 되와 물에서 건진 보리쌀을 가지고 왔다.

탈출자들은 밤을 새우며 험준한 산골짜기 속으로 되도록 밀림지대를 찾아서 걸어 들어갔다. 대구24부대에서는 학병들이 탈출한 다음날 아침 내무반의 인원수를 확인하던 중 6명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6명 모두 한국인 학병출신자라는 것이 판명되고 전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군들은 모든 작전을 수색으로 돌렸고 전부대가 수색대로 편성되어 실탄이 지급되는 등 완전 전투태세로 돌입하였다.³⁵⁾ 학병탈출사건으로 대구24부대가 발각 뒤집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군병력, 경찰, 경방단, 면서기 등 사단병력 이상이 동원되어 대구시내를 뒤지는 한편 팔공산으로 포위망을 압축해 왔다.

부대를 탈출한 6명은 팔공산으로 들어가 진불암을 향해 올라갔다. 8일 오후 2시경 山吾道岩에 도착하였고 진암불에 도착하였다. 학병들이 팔공산 방향으로 탈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8월 9일부터 팔공산 일대에 걸친 대수색작전이 전개되었다. 일본군측에서는 정찰기를 끊임없이 띄우고 대구 주둔의 6천 명의 병력을 풀어 이잡듯 뒤지기 시작하였다. 수색작전은 5m 간격으로 일렬횡대를 짓고 산 전체를 훑어가는 것이었다.

대구24부대 하수구 구멍을 빠져 나와 진불암 근처에서 3일 보낸 뒤, 8월 12일 진불암을 빠져나왔다. 탈출병에 대한 수색작업은 1,000명을 웃도는 병력과 경방대를 동원해서 팔공산 입구 雉山洞에서 진불암까지 토끼몰이를 하였다.³⁶⁾ 탈출한 학도병들은 8월 중순 날씨는 춥지 않았지만, 탈출 후에 그들이 먹은 것은 권성훈의 누나집에서 가져온 면지 ½, 껌데기 ½, 보리로 범벅이 된 6합 정도의 식량뿐이었다.

수색은 계속되었고 굶주림에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8월 12일 저녁 탈출병 6명은 다시 모여 숙의를 한 끝에, 수색대를 따돌리기 위해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권성훈과 권중혁, 김복

현과 김이현, 권혁조와 문한우 3조로 편성해서 분산하여 도망가기로 결정하였다. 권성훈·권중혁이 한조가 되어 新寧방면으로 떠났고, 김이현·김복현은 적당히 갈 곳도 없어 팔공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탈출을 주도했던 권혁조와 문한우는 의성에서 대구로 와서 권혁조의 친구가 있는 안동으로 갔다.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친구는 탈출병의 불시 방문을 받고 놀라서 하루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곧바로 경찰에 밀고를 하여, 이들 두 사람은 안동역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군수사본부에서는 안동까지 병력을 급파하였고, 체포된 권혁조와 문한우는 기차를 타고 대구역에 도착하여 대구24부대 영창에 감금되었다.

권중혁과 권성훈은 김복현·김이현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8월 14일 새벽녘에 덕천리 권성훈 누나집(매부: 崔德石)으로 갔다. 이들 두 사람은 권성훈의 누나집 밀실에서 칩거생활을 하였다. 권성훈 누나의 시어머니가 친척에게 학도병들이 숨어있다는 얘기를 하자 그자가 곧바로 고노면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에 밀고하였다. 이에 이들 두 사람도 체포되고 말았다. 체포된 권중혁과 권성훈은 수색대 사령본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기차로 대구로 이송되어 연대본부로 압송되었다.

팔공산에 남아있던 김이현과 김복현은 10여일 더 수색을 받고 쫓기다가 하산을 하였다. 굶주린 두 사람은 산골짜기 인가에 들어가 감자밥으로 배를 채웠다. 이들은 김복현의 친구 집이 있는 의성으로 갔다. 친구 집에서 국민복 두 벌과 농구화 두 켤레를 구하고, 하루를 쉬고 40원을 받아 길을 떠났다. 이들은 상주·김천·거창을 지나 함양으로 가서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이미 지리산에는 각종 기괴자 청년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다. 김이현의 표현에 따르면, “광복군의 조직체가 아니라 좌익계임을 느끼고 이내 방향을 바꾸어 남원으로 나와 대전을 거쳐 서울로 왔다”고 한다.³⁷⁾ 서울로 들어온 두 사람은 이곳에서 헤어지기로 하였다. 김이현은 의정부로 가 중학교 동창 權惠允에게 돈을 받아 신의주를 거쳐 만주 안동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35) 許相燾②, 위의 글, 32-433쪽.

36) 權重赫, 위의 글, 445쪽.

37) 金而鉉, 위의 글, 373쪽.

奉天(현재 심양)으로 들어갔다. 김이현이 찾아간 곳은 임시정부 참모총장으로 있던 柳東悅 장군이 밀파한 柳原海와 尹元章계통의 조직체였다고 한다. 서울에서 김이현과 헤어진 김복현은 광산을 전전하면서 피신생활을 하다가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³⁸⁾

결국 6명의 탈출 학병들 가운데 4명이 체포되고, 2명만이 탈출에 성공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제는 탈출 학도병들을 잡기 위해 너무나 엄청난 물량과 병력을 동원해야만 하였다. 24부대를 비롯한 일본군들은 군사훈련을 접어치우고 대구연대 안에 수색본부를 두고 하양·영천을 비롯한 경상북도 내의 주요 군소재지마다 수색지부를 두고, 6천 명 전 병력을 40여일 동안이나 배치하였던 것이다. 탈출한 학병들과 약간의 연관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끌려가서 그들의 행방을 수색하였다.

체포된 학병들 문한우·권혁조·권성훈·권중혁은 8월 28일 영창생활 6일만에, 연대본부 앞마당에 끌려왔다. 연대장은 체포된 학병들에게 혼시를 했다. 그 후 헌병대로 이첩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헌병대로 끌려온 지 60여일 만인 11월 3일 서울 용산20사단 법무실로 이송되어 군법회의 구치소에 구금되었다.³⁹⁾

12월 8일 서울 용산의 조선군사령부에서 군사재판이 열렸다. 군법재판은 중앙에 재판장인 大佐가 앉고 그 뒤편에 師團長이 앉고, 배심관 3명 검찰관 1명, 모두 6명으로 구성된 특별군법회의였다. 군법무관의 심문을 받고 검찰관의 구형이 있었다. 문한우와 권혁조는 '黨與逃亡과 橫領罪로 징역 5년,⁴⁰⁾ 권성훈과 권중혁은 '당여도망죄'로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되었다.⁴¹⁾ 그리고 한 시간 후 재판장의 언도가 있었는데 검찰관의 구형과 같았다. 대구24부대 탈출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구형이 있고 곧바로 언도가 내려졌던 것이

38) 金而鉉, 위의 글, 374쪽; 김복현 아들 김호연과의 인터뷰(2004. 10. 13).

39) 權重赫, 「못다 이룬 나의 포부」(1·20同志會, 『1·20學兵史記』 제3권, 1·20同志會中央本部, 1990), 454쪽.

40) 「권혁조(權藤哲郎) 재소증명서」(小倉刑務所 발급, 倉刑庶發 第86號).

41) 「권중혁(吉原國烈) 재소증명서」(小倉刑務所 발급, 倉刑庶發 第112號).

다. 이와 같이 속전속결로 군사재판을 진행시킨 이유는 탈출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어 사건의 진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무튼 탈출자들의 죄명은 '당여도망죄'였으나 문한우와 권혁조가 5년, 권중혁과 권성훈이 4년의 형량을 받았다. 문한우가 5년형을 받은 것은 일본군 입대 전 선고받은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가산되어 형기가 1년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권혁조가 5년을 선고받은 이유는 도망죄 외에 횡령죄가 추가되었는데, 그 횡령죄라는 것이 일본군의 官物인 군복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군사재판을 받은 학도병들은 1944년 12월 23일 밤 포박된 채로 서울역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여, 釜關 연락선을 타고 24일 저녁 9시 큐슈(九州)의 고쿠라육군형무소(小倉陸軍刑務所)에 수감되었다.⁴²⁾ 고쿠라육군형무소는 군형무소 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곳이었다. 이곳 형무소가 얼마나 지독한 곳인지 겨울이 지나면 죄수의 반이 죽어간다고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권혁조는 재봉반에 들어가 재봉사가 되었으며, 문한우는 아이통반에 들어갔다.

대구학병의거의 주역들은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있을 무렵,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죄수 전원 180여 명이 식당에 모여 일왕의 항복 선언을 들었다. 그 다음날부터 형무소내에서 작업은 일절 폐지되었고 감방에서만 기거하였다. 대구24부대를 탈출한 학병자들은 이제 석방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한국의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일본인들과 囚人引渡술에 의해서 서로 바뀌어 하니까 인질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석방시키지 않았다. 해방 당시 고쿠라육군형무소에는 학도병출신이 8명 있었고, 징병출신이 70여 명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학병과 징병을 거부하

42) 문한우(징역 5년, 수감번호: 964), 권혁조(징역 5년, 수감번호: 963), 權泰鏞(징역 4년, 수감번호: 965), 권중혁(징역 4년, 수감번호: 966) 등이다(林永善, 「小倉陸軍刑務所 獄中記」(1·20同志會, 『1·20學兵史記』 제2권, 1·20同志會中央本部, 1988, 375쪽).

거나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간수들은 한국인들에게 급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1945년 10월 17일 그동안 일한 보수라고 하면서 5원을 받고 형무소 철문을 나왔다. 고쿠라형무소에 있던 한국인들은 이들 간격으로 두 차례로 나누어 석방되었다. 제1진은 징병 30명과 학병으로는 李允喆·太成玉·河泰鳩, 제2진으로는 징병 48명과 학병으로는 林永善(함흥학병 탈출자)·문한우·권중혁·권성훈으로 정해졌다.⁴³⁾ 10월 18일 제1진이 하카다(博多)항에서 배를 탔다. 제2진은 19일 오전 10시 태극기를 앞세우고 하카다항에서 배를 타려고 했으나 선편이 없어서, 20일 아침 배를 타고 21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10월 22일 권중혁, 권혁조, 권태용, 임영선은 대구에 있는 문한우의 집에 도착하였다.

5. 집단 탈출자의 출신과 성향

대구24부대에 입대한 학병들은 대부분 경북과 경남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입대한 학생들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일제의 강제적 동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엘리트들로서 체력이나 지식면에서 다른 부대원들보다 월등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학병출신자들은 모두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입대와 동시에 일제가 패전 쪽으로 간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때에 학병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패전 직전에 있는 일제에게 일격을 가한다면 그만큼 일제의 멸망과 조국의 독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탈출을 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43) 林永善, 『小倉陸軍刑務所 獄中記』, 409쪽.

그러면 대구24부대 탈출자들의 출신과 성향을 통해 탈출의거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탈출자를 출신지별로 보면 문한우⁴⁴⁾와 김이현이 대구 출신이며, 권성훈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대구 동화사에서 자랐으며, 권혁조는 경북 예천출신,⁴⁵⁾ 권중혁은 경북 영일출신,⁴⁶⁾ 김복현⁴⁷⁾은 경북 금릉 출신이다. 이처럼 대구24부대 학병의거를 단행한 학도병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지역 출신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입대 전에 대부분 항일의식이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부분 독립운동과 관련을 맺은 사람도 있었다.

한국인 학도병들은 인텔리인데다가 늘 일본과 일본군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강제로 입영한 학도병들은 자연스럽게 탈출을 계획하게 되었다. 대구24부대 탈출의거에는 뚜렷한 지도자는 없지만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학도병은 문한우(1920년 1월 22일생)이다. 그는 대구 계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10월 연희전문학교 문과 3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 마음 맞는 동지들과 「조국대한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토론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일경에 체포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참혹한 고문 끝에 재판을 받고 1년 징역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언도받아 6개월만에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⁴⁸⁾ 그러나 집행유예가 풀리지 않았다는 구실을 붙여 일제는 문한우를 학도병으로 끌고 왔다.

또한 탈출의거의 주도자인 권혁조를 들 수 있다. 그는 일본 중앙대학 재학 중 부산도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학병으로 입대하였다.⁴⁹⁾ 중학교 시절

44) 문한우의 본적은 대구시 계산동 2가 210번지이다.

45) 권혁조의 본적은 경북 예천군 개포면 상동 374번지(현재 예천읍)이다.

46) 권중혁의 본적은 경북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 340번지(현재 포항시 북구 죽장리)이다.

47) 김복현의 본적은 경북 금릉군 대덕면 안기리 241번지이다.

48) 金而鉉, 위의 글, 365쪽.

49) 권혁조는 신장 172cm, 체중 45kg, 문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은 볼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얼굴은 호남형인데다가 그 크고 검은 눈 속에는 심심치 않게 무서운 빛을 내뿜고 있다. 권혁조의 창씨명은 곤도우 데쓰로우(權藤哲郎), 녀자 이름이 첫 번째 자와 세 번째 글자만으로 약해져서 權哲, 즉 '곤테쓰'라고 불려졌다. 그는 말솜씨가 좋아 대구24부대를 이끄는 인물이며, 학병탈출을 주도하였다(許相燾·金鳳虎·吳台鎮의, 위의 글, 357쪽).

부터 의분심이 강해서 일본인들과 싸움을 잘했고, 그때마다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경찰서 출입이 잦았다. 이 때문에 5학년 1학기에 퇴학을 당하고 그 후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북만주 일대를 누비다가 나중엔 실망을 안고 일본 동경으로 와서 중앙대학에 다녔다.⁵⁰⁾ 입대 후 뛰어난 말솜씨와 수단으로 대구24부대 중대 인사계를 맡았다.

탈출에 성공한 김이현은 문한우의 계성중학교 2년 후배로서, 일본 명치대학 경제과 3학년 재학 중이었다가 입대하였다. 그는 곡물상을 하는 아버지 그늘에서 자라온 학생으로 군대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의 수기에 따르면, 자신은 일본유학시절 동경에서 우연히 입정에서 파견된 李永山이란 독립투사를 만났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사상을 품고 있던 학생이었고, 그로 인해 요시찰 학생이 되어 동경경찰서를 사랑방 드나들 듯 하곤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⁵¹⁾ 김이현은 대구24부대에 입대하여 변소를 치우고 있을 때, 어떤 인부가 접근해 와 “김이현씨는 임시정부에서 온 분을 동경에서 만난 일이 있지요?” “나는 그분의 밀명을 받고 오래 전부터 당신을 만나고자 이 부대의 똥을 치게 된 거요.” “동경에서 만났던 분은 일본군에 들어가면 항거하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끌려가게 되면 탈출하여 광복군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⁵²⁾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김이현과 함께 탈출을 결행한 김복현(1923년 4월 25일생)은 김천고보를 졸업하고 보성전문 법과 재학 중에 입대하여 부대를 탈출하였다. 그는 김이현과 함께 팔공산에 있다가 그의 친구가 있는 의성으로 가서, 국민복 두 벌과 농구화 두 켤레, 40원을 받아 서울로 왔다. 그는 서울의 누나집에서 있다가 광산을 전전하면서 피신생활을 하다가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⁵³⁾

50) 許相燾·金鳳虎·吳台鎭외, 위의 글, 370쪽.

51) 金而鉉, 위의 글, 366쪽.

52) 金而鉉, 위의 글, 367쪽.

그밖에 권중혁(1921년 12월 18일생)은 경북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의 豪農 아들로써 보성전문을 다니다가 기혼자로 입대하였으며, 권성훈은 대구 동화사 주지의 양자로 혜화전문에 다니다가 입대하였다.

한편, 대구24부대를 불가피하게 탈출을 하지 않았지만, 동조한 사람으로 는 김봉호가 있다. 그는 피혁공장을 경영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慶應義塾을 다니다가 입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시력이 나빠 마지막에 동참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 중앙대 법과에 다니던 허상도도 탈출에 동참하고자 하였지만, 탈출 당일 불침번 당번이었기 때문에 함께 탈출을 하지 못하였다.⁵⁴⁾

이상에서 보아 대구24부대 탈출자들은 대개가 부유한 집안의 출신으로 일제말기에 대학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유복한 가정 출신들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향은 일본군대와 같은 가혹한 학대와 일본인들의 모욕적인 차별대우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일본인들의 민족차별적 처우에 철저하게 대항하였으며 그것의 적극적 대항수단으로 부대탈출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또한 탈출자들은 입대 이전부터 독립운동과 일정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한우나 김이현·권혁조의 경우와 같이 입대 전에 적극적으로 항일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고 항일운동 경력을 가진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입대와 동시에 항일적 성향을 가지고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조국의 독립에 일조할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이고, 이 같은 모색의 결과 일제의 강제적 병력동원에 대항할 방법으로 탈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53) 김복현의 아들 김호연과 인터뷰(2004. 10. 13).

54) 許相燾③, 위의 글, 207쪽.

6. 맺 음 말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제는 한국인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 전면적인 징병제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각 학교에 군사교육을 담당할 배속장교를 배치하였으며, 1934년 9월부터 경성제일고보 등 5개교에 군사교련을 실시하였다. 그 후 일제는 1943년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에 의해 한국인 학생들을 징집하여 전쟁터에 내몰았다.

강제동원된 한국인 학생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희생되기 보다는 일본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자 하였다. 그들은 지식층으로서 일제에 대항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소극적으로는 강제동원을 기피하고 산 속에 은신하면서 저항하였으며, 적극적으로는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독립운동 단체로 가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인 학병들은 처음부터 일제의 강제동원을 기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영 후에도 계속적으로 탈출을 기도하였다. 함흥43보병부대 탈출사건, 평양사단 탈출사건과 대구24부대 탈출사건은 학병들이 주도되어 실행한 대표적인 의거로서 독립운동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군의 강제적 병력동원에 저항한 한국인 학병들의 항쟁에 대해 일부만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탈출이 아닌 집단적 탈출로서 독립운동사에서 주목받아 왔지만 실제적으로 연구가 되지 못한 대구24부대 탈출의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구 탈출의거를 주도한 학병들은 이전부터 일제에 대한 반일 의식이 강한 인물들이었고, 입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본군과 군대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1944년 8월 8일 6명이 집단탈출을 감행하였다. 불행히 4명이 체포되었지만 2명은 탈출에 성공하였다. 대구학병들의

의거는 단순히 일본군대를 벗어난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탈출을 감행함으로써 일제말기 암울했던 시기 한국인 청년들의 민족적 기개를 떨쳤으며, 나아가 강제동원된 징병·지원병들에게 탈출을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 의의가 높다.

탈출에 성공한 김이현은 국내를 벗어나 독립운동 단체에 투신하였으며, 김복현은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탈출에 실패하였던 4명은 지옥중의 지옥이라는 고쿠라육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강제동원된 한국인 병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대구학병의거 이후 강제동원된 학병들은 평양에서 대규모 탈출을 감행하였으며, 기타 다른 부대의 학병 및 징병자들의 탈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당시 학병탈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그 실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대구24부대 탈출사건은 당시 피체된 학병들이 군사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판결문」 등 일제측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의거에 대한 실상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보충하고자 한다.

대구24부대 탈출의거를 단행한 학병들은 해방 이후 문한우는 대구 계성고등학교 음악교사로 활동하였으며, 권혁조(권철휘)는 해방 후 영화사업에 뛰어들어 감독과 제작을 하였다.⁵⁵⁾ 권성훈·김복현·권중혁은 교육계에 종사하여, 권성훈은 거창에서 중학교 교감을 지냈으며,⁵⁶⁾ 김복현은 함창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권중혁은 대구여중, 영남사립학교, 구룡포중학교 등의 교사로서 교육계에서 정년퇴임을 하였다.⁵⁷⁾

55) 권혁조는 해방후 권철휘로 개명하였으며, '월하의 공동묘지'(감독), '오부자'(제작) 등의 영화를 만들었다. 만년에 한의학에 심취하여 우암식품이라는 식품회사를 경영하였다가, 2002년 1월 10일 사망하였다(권혁조의 장남 권세진과의 인터뷰, 2004. 10. 11).

56) 권성훈은 해방후 權泰鏞으로 개명을 하였으며, 『구름을 뚫고 : 日帝學兵脫出記』(泰東文化社, 발행년도 불명)라는 회고록을 썼다.

현재 대구학병의거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김이현은 건국포장(1977), 문한우와 권태용(권성훈)은 애족장(1990), 권중혁(2005)과 권철휘(권혁조, 2007)는 건국포장을 받았다.

(원고투고일 : 2007. 9. 18,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 강제동원, 학도병, 징병, 대구24부대, 집단탈출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Soldiers Escape from The 24th Japanese Military Unit in *Daegu*

Kim, Do-hyung

Japanese imperialist had to intend to mobilize the Korean youngman to made up the strength with Korean's compulsory in the Pacific War. Especially, they could have not to made up only Japanese soldiers for a long war time and the expansion of battle-lines. Therefore, Japanese enlisted Korean young man to be made up 'Japanese soldier'.

Japanese imperialism recruited Korean students by 'the regulation of the army special volunteer temporary adoption for Korean' in 1943. Korean students who compulsory recruited soldiers by Japanese had to intend to get out of Japanese troops and to take part in independence movement for liberation of Korea everytime. Korean students did not only evasion of conscription but also escape from Japanese troops after entering barracks.

Korean university students as intelligent wanted to opposite to Japanese imperialism, passively to resist by the evasion conscription and to hide themselves in mountain. They actively resisted to escape from the Japanese troops. But, not easy to escape from the Japanese troops because Japanese kept watch out Koreans in the barracks. In addition to, it was to escape from the Japanese troops by mass.

None the less, six Korean soldiers of the 24th Japanese Military Unit in *Daegu*, attempted to escape in August, 1944. The Japanese Unit in *Daegu*, had taken about 600 Korean student soldiers that came from *Gyeongsang* Province.

57) 권중혁과의 인터뷰(2004년 8월 14일).

Korean soldiers's revolt to escape from Japanese in *Daegu* was the patriotic revolt to have conviction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after the Pacific War. Six Korean soldiers got out of Japanese in the 24th Unit in *Daegu* on August 8, 1944. They could get away from Japanese troops, but 4 members of their companion were arrested and only 2 members to success to get out of Japanese.

It was not simply meaning to get away from Japanese troops. Korean soldiers had to attempt to get the visions of the Japan's defeat. After Korean soldiers' escape in *Daegu* led to another attempts like the *Pyeong-yang* Unit. And it was given big influence to escape of the Korean student soldiers and conscription soldiers in the others Japanese troops.

Key Words : Compulsory Mobilization, Student Soldier, Conscription, The 24th Japanese Military Unit in *Daegu*, Mass Escape